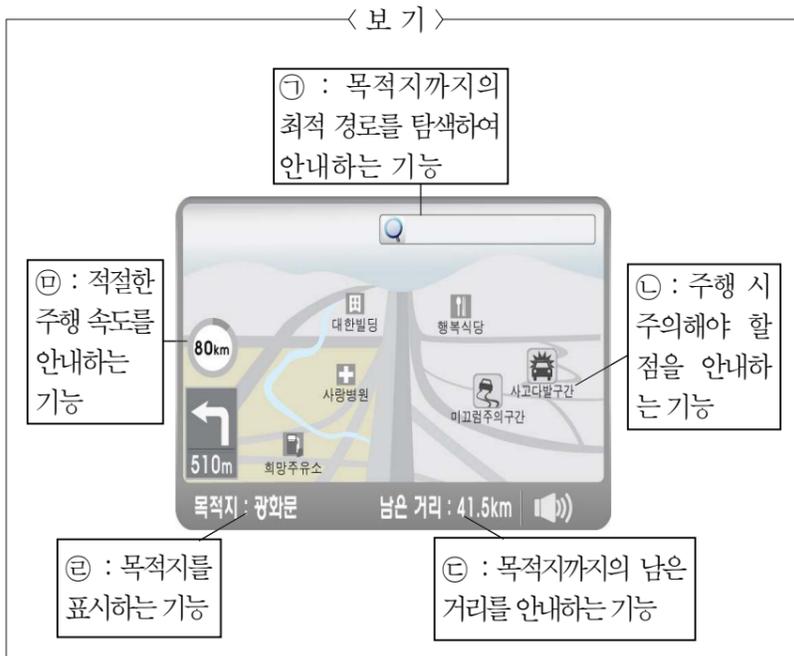




6. <보기>의 내비게이션 기능에 착안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아 고민하는 후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 : 학습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③ ㉢ :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학습량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④ ㉣ : 학습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를 안내해야 한다.
- ⑤ ㉤ :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 알맞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7 ~ 8] 다음은 '생활 속 나눔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7번과 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나눔은 메마른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실천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 속에서 ㉠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 방법을 몰라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손쉽게 ㉡ 실천될 수 있는 '생활 속 나눔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나누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려운 이웃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단체에서 주관하는 '생활 속 나눔 운동'은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 그러나 자신의 기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기부의 ㉣ 종류도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의류, 도서, 학습지 등의 물품 기부, 그리고 강연과 같은 재능 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빠져있으므로 '나눔을'을 넣는다.
- ②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실천할'로 바꾼다.
- ③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주체'로 바꾼다.
- ⑤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8. 위 글을 고쳐 쓴 후,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 기 >

<조건>

- '생활 속 나눔'의 의미를 담을 것.
- 비유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나눔  
나눔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②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집니다.  
겸손은 마음의 벽을 녹이는 미덕입니다.
- ③ 내가 입던 옷도, 내가 가진 목소리도  
밝은 세상을 만드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눔의 마법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 ⑤ 세상을 다 가지려는 욕심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쓰지 않는 물품으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9.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와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청소년 여가 활동의 필요성 증대 ..... ㉠

II. 본론

1. 실태 ..... ㉡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저조한 동아리 참여율
2. 장애 요인  
가.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역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나. 문화 행사 유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 과열 ..... ㉢  
다.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지역 내 전문 인력 부족
3. 활성화 방안 ..... ㉣  
가.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나.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동아리의 추가 개설

III. 결론  
-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 ㉤

- ① ㉠은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바꾼다.
- ② ㉡에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 체험 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③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동아리의 부족'으로 고친다.
-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동아리 지도자 양성'을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지원 촉구'로 바꾼다.

10. <보기>를 활용하여 ‘할인 쿠폰의 사용’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신문 기사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생 을 비롯한 젊은 소비자들의 쿠폰 사용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나) 통계 자료 (설문 조사)  
1. 할인 쿠폰 이용 실태

• 사용 경험

그룹	없다 (%)	있다 (%)
<직장인>	63.6	36.4
<대학생>	15.2	84.8

• 사용 이유

이유	비율 (%)
비용절감	70
사용의 편의성	25
기타	5

\* 응답 대상: 할인 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 할인 쿠폰 이용 시 불만 사항

불만 사항	비율(%)
사용 기한이 너무 짧음	30.9
제품이 한정되어 있음	29.6
할인율이 너무 적음	21.1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불친절함	12.5
기타	5.9

(다) 인터뷰 자료  
“할인 쿠폰으로 원하는 상품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현명한 소비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의 폭이 좁고 사용 기한에 여유가 없어서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할인 쿠폰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 소비자 ○○○ -

(라) 연구 자료  
할인 쿠폰은 기존 사용자들에게 반복 구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충동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① (가) : 할인 쿠폰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 ② (다) : 할인 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가)와 (라) : 할인 쿠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④ (나)-1과 (라) : 대학생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⑤ (나)-2와 (다) : 할인 쿠폰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쿠폰의 사용 시 소비자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용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손’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씹씹이나 사람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일을 하는 솜씨나 처리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솜씨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른 경우와 느린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이제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 ② 제가 손이 서툴러서 일을 망쳤으니 어찌면 좋아요.
- ③ 철수는 손이 여물어서 어려운 일도 잘 마무리합니다.
- ④ 영수 엄마는 손이 재서 음식을 금방 만들어 내왔습니다.
- ⑤ 손이 뜬 민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작업을 끝냈습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 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들리라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벽차리  
봄이 오는 이 **솔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솔숲에서」 -

(다)

내 이미 백구 잇고 백구도 나를 잇네  
㉠ **둘이 서로 잇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 ㉡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랴  
㉢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내 바가지 버리려문  
네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

-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

\* 벼슬 제안을 들은 귀를 영수에 씻은 허유와 그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은 소부의 고사에서 차용한 것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③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④ 자연물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 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랑나비’와 (나)의 ‘박새’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② (가)의 ‘눈보라’와 (나)의 ‘찬 서리’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 ③ (가)의 ‘달’과 (다)의 ‘달’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
- ④ (나)의 ‘술이파리들’과 (다)의 ‘붉은 잎’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 ⑤ (나)의 ‘술숲’과 (다)의 ‘강’은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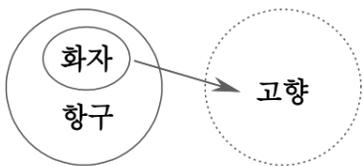
- ① ‘내리고’, ‘지네’ 등에 드러난 하강 이미지는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 ② ‘묵은 잎’은 화자가 지나온 삶을, ‘새 잎사귀’는 화자가 기대하는 삶을 함축한다.
- ③ ‘이 세상’, ‘이 고요한 술숲’ 등에서처럼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내 마음 가장자리’, ‘술숲 끝으로’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
- ⑤ ‘봄산’ → ‘봄이 오는 이 숲’ → ‘봄이 오는 이 술숲’으로 시상을 구체화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자야곡」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 하의 냉혹한 현실을, 향구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이끼’만 푸를 ‘무덤’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고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
- ② ‘검은 꿈’이 ‘슬픔’과 ‘자랑’을 집어삼킨다는 표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③ ‘매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
- ④ ‘숨 막힐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던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 ⑤ ‘강땀’을 ‘차디찬’으로 수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어.

18.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별은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옥계산에 은거하였다. 그는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정신을 지향했다. 이 시에서는 현실 세계를 혼탁한 세상으로 여긴 반면,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① ㉠ : 혼탁한 세상에서 떨어져 자연에 친화된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② ㉡ : 은일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 화자와는 달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④ ㉣ : 속세의 명리를 중시하지 않는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 ⑤ ㉤ : 세상의 청탁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 분야의 게임이론이란 상호의존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를 밝히는 모형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복점기업의 경우,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의존적 상황이 된다. 복점기업의 게임은 의사결정이 동시적이냐, 순차적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보자. 게임에서 얻는 이득을 보수라 하는데, <표>는 두 기업이 각각 얻게 될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A사와 B사는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가전략과 저가전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A사가 고가전략을 선택할 경우 B사는 고가전략에서 8억, 저가전략에서 10억의 보수를 얻게 되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가 저가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도 B사는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 역시 B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얼핏 보면 8억씩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전략이 우월전략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기업은 저가전략에서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표> A사와 B사의 보수행렬 (단위: 원)

구 분		B사	
		고가전략	저가전략
A사	고가전략	(8억, 8억)	(1억, 10억)
	저가전략	(10억, 1억)	(4억, 4억)

(괄호 왼쪽은 A사, 오른쪽은 B사의 보수를 나타냄.)

기업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와 B사는 우월 전략 균형 상태에서 4억씩의 보수를 얻기보다는 고가전략으로 담합함으로써 8억씩의 보수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현재 모두 8억씩의 보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담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A사가 담합을 깨고 저가전략을 선택하면 일시적으로는 10억의 보수를 얻을 수 있지만, B사도 곧바로 저가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므로, 이후로는 두 기업 모두 4억의 보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담합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편 복점기업 중 한 기업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반응하여 다른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순차게임이라 한다. 순차게임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순서와 예상 결과를 나타낸 ㉠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 가령, A사가 특정 지역에 매장을 개장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이어서 B사도 같은 지역에 진입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A사는 대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와 소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률을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A사의 선택 여하에 따라 B사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A사는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매장 규모를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게임 상황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수라 한다.
- ② 순차게임에서는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복점기업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을 의미한다.
- ④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한다.
- ⑤ 우월전략은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상대 기업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20.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음료를 생산하는 복점기업인 '갑'과 '을'은 저가전략을 유지하다가, 동시에 음료의 가격을 10%씩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 ① '갑'과 '을'은 담합 이전에는 최대의 보수를 얻을 수 없었겠군.
- ②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겠군.
- ③ '갑'이 담합을 깨고 가격을 인하한다면 '을'도 곧 가격을 인하하겠군.
- ④ '갑'과 '을'은 고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했겠군.
- ⑤ 담합 이후 '갑'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갑'의 보수가 증가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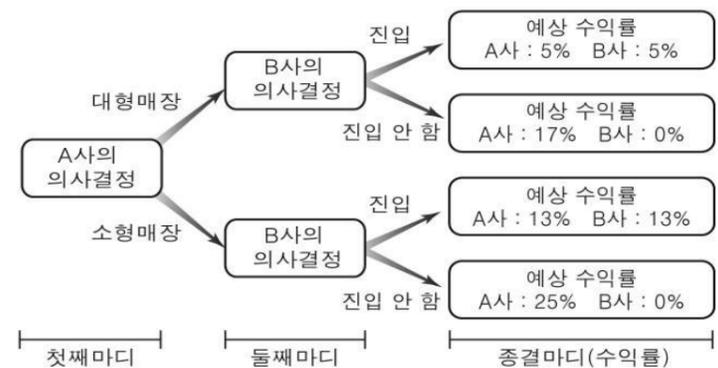
21. <보기>는 ㉠의 사례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A사는 ○○ 지역에 직판매장 개점을 결정하고 아래의 의사결정나무를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선택할 예정이다.

(단, B사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경우에만 매장을 개점한다고 가정함.)



- ①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B사'의 수익률은 'A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 ②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A사'의 수익률은 'B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 ③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A사'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다.
- ④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 ⑤ 'A사'가 선택한 매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B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A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과를 본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知覺)했을 때, ‘사과’는 지각의 대상, ‘철수’는 지각의 주체, ‘사과가 붉다’는 지각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주의는 인간의 정신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인과적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대상이 주는 자극과 대상으로부터 얻는 지각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 전제되어 있다. 철수가 사과를 지각하는 경험을 예로 들면, 대상인 사과에서 자극된 색깔의 요소가 철수에게 감각되고, 그 요소가 뇌에 전달되어 ‘사과는 붉다’는 식으로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주의의 관점으로는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사과를 회색으로 지각하는 경우처럼,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다. 달리 말해, 지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개념에 감각된 요소들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했다면, 철수의 정신에 존재하는 ‘사과’, ‘붉다’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감각된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다. 주지주의의 이론대로라면 정신 내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은 지각이 불가능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메를로 폰티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지각에 대한 설명을 비판했다. 그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에 비해 대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 오류를 범했고, 주지주의는 대상에 비해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의 공통된 원인은 지각 과정에서 지각 주체인 인간의 ‘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를로 폰티는 인간의 ‘몸’에 ㉢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몸’은 정신을 주관하는 주체이고,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지향성을 지닌 ‘몸’이라는 점에서, 생리학적인 몸과 구별된다. 그는 ‘몸’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학적 장’ 개념을 도입해 지각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각은 ‘몸’이 특정한 상황에서 대상과 마주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다. 즉, 의식의 주체로서의 ‘몸’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대상과 마주하는 장면이 ‘현상학적 장’이고, 이러한 ‘현상학적 장’에서 ‘몸’이 ㉣ 체험한 것이 곧 지각이라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의 관점에 따르면,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대상이 회색으로 지각된 것은, ‘몸’의 착각이나 시간과 공간 등의 ㉤ 변수에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인간의 의식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각도 ‘몸’이 의식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몸’의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메를로 폰티의 지각에 대한 설명은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틀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2.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심 용어를 설명하며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논의 대상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면서 논지를 종합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3.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 ① 경험주의는 대상과 지각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해명하고자 했다.
- ② 주지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재구성한다.
- ③ 메를로 폰티는 주지주의와 달리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지각을 설명한다.
- ④ 메를로 폰티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 ⑤ 메를로 폰티의 지각 개념보다 경험주의의 지각 개념이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4.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철수는 장미꽃이 놓인 식탁에 앉았다. 철수는 그 꽃을 빨간 흑장미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실내가 어둡다고 생각한 철수가 커튼을 걷고 보니 그 꽃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이었다.

- ①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장미꽃이 놓인 식탁’은 객관적인 세계에 해당하겠군.
- ② 주지주의의 관점에서는 ‘장미꽃’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식탁’보다 ‘철수’의 정신 작용을 더 중요시하겠군.
- ③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따를 때 동일한 ‘식탁’이더라도 시간이 달라지면 ‘현상학적 장’은 다른 것이겠군.
- ④ 경험주의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을 지각 주체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설명하겠군.
- ⑤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따르면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을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은 ‘커튼’이 쳐진 어두운 실내 공간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겠군.

25.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② ㉡: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 ③ ㉢: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 ④ ㉣: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
- ⑤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낙동강 주변의 고지대 ‘마삿등’ 사람들은 공공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다. 황거칠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우물을 파서 마을로 물을 끌어 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호동팔은 그 산이 자신의 형 호동수가 매입한 산이므로 수도 시설을 철거하라고 한다. 황거칠 씨는 재판에서 진 후, 강제로 우물을 헐고 수도 시설을 철거하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다.

일행이 구류장에서 풀려 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죽일 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 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 ㉠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찌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든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예의 쇠 작대기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암 훨씬 뒤 굴밤나뭇골이란 데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 임야였다.

(중략)

그날 밤 그는 실근이를 비롯해서 가까이 지내는 통·반장 몇 사람과 저번 날 일로 말미암아 함께 구류를 살던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다.

먼저, 동팔이와 화해를 앓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물 곤란을 주고 있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과 겸 말하고, 그날 낮 산을 돌아본 얘기와 자기의 ㉣ 새로운 계획을 비쳐 보았다.

“한번 진다는 건 두 번 질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지다가 지다가 지금 같은 꼴들이 된 게 아닐까요? 내가 그런 업두를 낸 것은 결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황거칠 씨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평소 말을 잘 안 하는 그

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새삼스레 어떤 희망이라기보다는 목은 분노라도 되살아나는 듯 눈마저 이상스럽게 이글거리는 것 같았다.

“됐심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합시더. 그까짓 새미 땃 개썸, 여러 사람이 가문 하리면 다 안 파겠능기요. 똥파리의 원수를 어서 갚아야 잠이 오지, 온.....”

동팔이를 때렸다가 혼이 난 인호란 청년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동조를 했다.

소주를 큰 걸로 두병이나 사 온 황거칠 씨의 할멈도 못내 기쁜 표정을 지었다.

“호씨 형제들의 심보도 심보지만, 산에 나오는 물꺼정 마음대로 몬 목구로 하는 법도 더럽지요!”

그녀는 새삼 억울하게 당한 일을 생각하곤 이렇게 빈정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뒤, 황거칠 씨의 할멈은 북창 위 시렁에 모셔둔 세존 단지 곁에, 영감이 산에서 가져온 물풀을 엮어 두고는 성주 세손에게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다.

쇠뿔도 단김에 췌다는 격으로 날이 새기가 바쁘게 ‘마삿등’ 남정들은 ㉤ 마을 뒤 언덕배기로 모여들었다. 실근이란 통장이 지난밤 황씨 집에서 얘기된 계획을 말하자 죄다 물 곤란을 겪던 터이라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 참 잘 생각했소. 더러 놈이 가져오는 물 목을 뽀 했딩이!”

“그렇기 말입더.”

모두 잘코사니\*를 치며 돌아갔다. 그것은 비단 호동팔이가 미워서만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마삿등’ 따라지 - 그러나 악바리들은 조반을 끝내기가 바쁘게 팽이랑 삽들을 들고, 더러는 황거칠 씨 집 앞길에 모여 들고 더러는 바른총으로 굴밤나뭇골로 올라갔다. 골은 거기서 십 리나 떨어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호동팔의 인부들이 열심히 ㉥ 파이프를 묻고 있었다.

“우리들 것 다칠라, 단딩이 하소!”

동네 사람들은 지나오면서 동팔이의 인부들을 보고 이렇게 주의를 시켰다. 그들은 황거칠 씨의 것을 ‘우리들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그만큼 그 수도 시설을 아끼는 심정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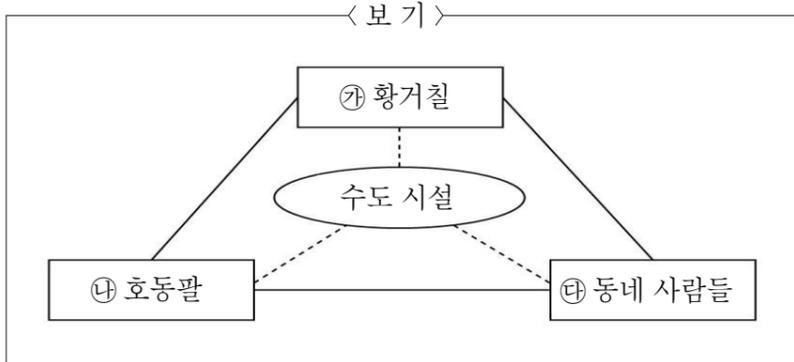
\* 잘코사니 : 고소하게 여기는 일. 주로 미운 사람이 불행을 당한 경우에 하는 말임.

- 김정환, 「산거족(山居族)」 -

2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장면마다 서술의 초점을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27. 위 글의 인물 간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의 수도 시설을 철거하게 만든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심리에서 새로운 수도 시설을 ㉡의 소유가 아닌 곳에 설치하려고 한다.
- ③ ㉡가 ㉠에게 한 제안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 ④ ㉡는 ㉢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⑤ ㉢는 ㉠의 의견에 동조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새 수원'을 찾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② '국유 임야'를 매입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다.
- ③ '호동팔의 물'을 쓰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다.
- ④ '호동팔'의 '시설'을 빌려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 ⑤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29. a~c 중,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진 기술이란 산업 현장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전기식 집진 방식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전자를 먼지나 유해 물질에 ㉠ 흡착하게 만든 후 이들을 집진판에 ㉡ 포집함으로써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또한 오염 물질 제거 과정은 같지만 집진판을 ㉢ 세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 집진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되며 국내 발전소에 설치, 운전 중인 집진기는 거의 대부분이 건식 전기 집진기이다. 그런데 점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초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건식 전기 집진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습식 전기 집진기를 최종적인 오염 제어 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 습식 전기 집진 장치의 본체는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원통형 집진 장치를 예로 들면, 우선 본체의 ㉤ 하부에는 오염된 가스가 유입되는 통로가, 상부에는 오염 물질이 걸러져 깨끗해진 공기를 ㉥ 배출하는 통로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통 안의 중심부에는 끝이 뾰족한 방전침이 달린 방전봉이, 원통 내벽에는 오염된 입자를 포집하기 위한 집진판이 설치되어 있다. 방전봉과 집진판에는 고압발생

장치에 의해 각각 (-)극과 (+)극이 연결되어 있다. 이밖에도 포집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집진판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장치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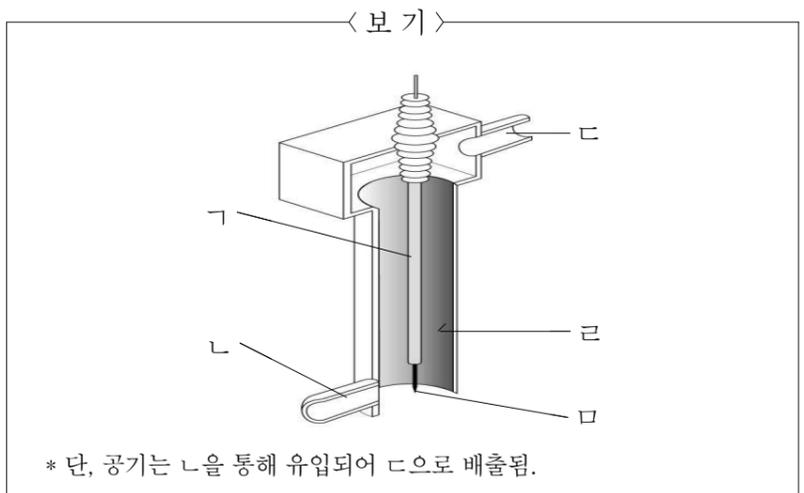
㉣ 습식 전기 집진기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압 발생 장치를 통해 방전봉에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방전봉의 끝 부분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 방전이란, 금속과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상태인 기체가 높은 전압에 의해 그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침처럼 끝 부분이 뾰족한 어떤 물체에 높은 전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뾰족한 부분으로 (-)전하\*가 몰리게 되고 정전기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의 기체 분자는 핵으로부터 전자(-)가 분리되어 기체의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후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된 전자들은 극성에 의해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들은, 방전봉과 집진판 사이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공기 중의 미세한 오염 물질들과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충돌에 의해 전자가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은 음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를 대전\*이라고 한다. 대전된 오염 물질, 즉 대전입자는 (-)극의 방전봉과 (+)극의 집진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여 집진판에 포집된다. 그리고 세정수에 의해 씻겨 내려가면서 오염 물질은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 전하: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 대전: 물질이 (+) 또는 (-)의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

30. 위 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전압은 얼마인가?
- ② 집진 장치의 본체를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건식 전기 집진 장치에서 집진기를 세정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④ 방전봉과 집진판에 서로 다른 극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집진 장치의 내부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31. <보기>는 ㉣의 단면도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극이, ㉤에는 (+)극이 흐르고 있다.
- ② 공기 속 오염 물질은 극성에 의해 ㉣으로 포집된다.
- ③ ㉥을 지나는 공기 속 오염 물질의 양은 ㉦보다 많다.
- ④ ㉤에는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세정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⑤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으로 (-) 전하가 몰리게 된다.



35. ㉠과 <보기>의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피카소의 <인형을 든 마야>이다. 이 작품에서 마야의 얼굴을 보면,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이지만 코는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겹쳐진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시점을 통해 재구성되어 있다. 피카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평면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②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작품화했다.
- ③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이 주는 표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작품이다.
- ④ ㉠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주었고, <보기>의 작품은 동일한 형태의 연속적 반복을 통해 입체감을 주었다.
- ⑤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한 시점에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모습이 변형되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36. <보기>의 '스티글리츠'가 ㉡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사진은 조각이나 회화 또는 회화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사진 그 자체'이다. 그는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성'이 있을 때, 사진의 본질과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사진의 본질은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 ② 사진의 본질은 '사진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
- ③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
- ④ 사진의 본질은 인위적인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사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⑤ 사진의 본질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설정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37.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는 내 동생과 짜고 나를 골탕 먹였다.
- ② 그는 액자를 짜고 그 안에 가족사진을 넣었다.
- ③ 할머니께서는 털실로 스웨터를 짜서 입혀 주셨다.
- ④ 같은 반 친구들끼리 조를 짜니 마음이 서로 잘 맞았다.
- ⑤ 철수는 방학을 맞아 학습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했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승상의 차남 위진의 부인 채씨는 장남 위윤의 부인 반씨를 모해한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 양부인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 채씨가 부친을 움직여 반씨의 남편 위윤, 부친 반공을 유배 보낸다. 이에 양부인은 득병하여 죽고 위진은 채씨를 불러들인다. 채씨가 반씨와 그녀의 아들 위홍을 모함해 집에서 쫓아내려 하자 반씨 모자는 양부인 묘 근처에 거처를 정한다.

일일은 흥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홀연 한 사람이 청사도복(靑絲道服)에 청사자(靑獅子)를 몰아 들어오거늘, 흥이 마당으로 내려와 맞이하여 예를 마치고 살펴보니, 풍채가 표일단아(飄逸端雅)한지라. 마음에 기이하게 여겨 공경 문왈,

“도인께서 누추한 곳에 임하사 미천한 아이를 찾으시니 황공하여이다.”

도인 왈,

“지나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한번 보고자 왔거니와, 성명이 무엇이니?”

대왈,

“위홍이로소이다.”

도인 왈,

“듣던 바와 같도다.”

흥 왈,

“그런즉 이적선이시니이까.”

도인 왈,

“그러하다.”

흥 왈,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래로소이다.”

도인 왈,  
 “양부인이 옥경(玉京)에 득죄하고 인간에 적거하였다가 도로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계시나, 군의 모자를 잊지 못하여 태을(太乙)께 청하여 나를 보내었으니 세상 사람이 알게 말라.”  
 하고, 인하여 밤마다 와서 글을 가르치니 일 년 만에 고금(古今)을 통하니, 반씨가 감격하여 사례하고자 하되 밤에만 왕래하니 얼굴을 보지 못할러라.  
 화설, 채씨는 홍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仙官)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A] “반씨가 삼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 같이 음일(淫佚)\*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사내종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하리라.”  
 하니, 사내종이 저마다 좋아서 뛰어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양부인이 큰소리로 왈,  
 “오래지 않아 액이 당도하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枕上一夢)이라.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할러라.”  
 반씨 대경하여 급히 홍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홍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사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어 한 피를 넘어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피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찾으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㉔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홍이 대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주며 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홍의 모자가 받아 먹으며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神靈)이더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홍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揚江)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가까우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村中)에 들어가리오.”  
 홍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潘府)를 찾아 나아가니, 유부인이 반씨를 보고 크게 반기며 홍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秀美)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공과 위상서가 유배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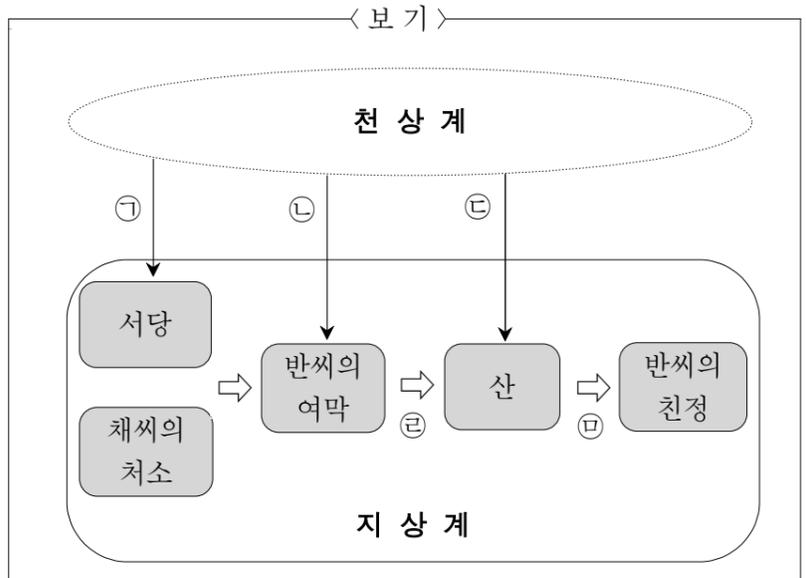
- 작자미상, 「반씨전」 -

\* 음일(淫佚) : 음란하고 방탕하게 놀다.  
 \* 쇠락(灑落) :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반씨는 위홍과 달리 이적선을 만나지 못했다.
- ② 위홍은 도적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 ③ 위진은 사내종을 시켜서 반씨 모자를 해치려 했다.
- ④ 반씨 모자는 산에서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⑤ 반씨는 지금의 처지로 친정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39. 위 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은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 인물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관련이 깊다.
- ② 천상계 존재가 위험에 처한 지상계 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㉒과 ㉓에서 각각 다르다.
- ③ ‘채씨의 처소’에서 일어난 일은 지상계 인물들의 이동인 ㉔과 ㉕의 원인이 된다.
- ④ 지상계 인물의 공간 이동인 ㉖은 천상계 존재가 피신처인 ‘산’을 안내해 준 ㉒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⑤ ㉑, ㉒, ㉓에서는 모두 천상계 존재인 ‘양부인’이 사건 전개에 개입하고 있다.

40.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부추기고 있다.
- ② 상황을 가정하여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④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41. ㉔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사일생(九死一生)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42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나 눈과 같은 강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미세한 물방울이나 작은 얼음 결정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이 구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강수가 생성된다.

온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서는 얼음 결정이 커져 강수가 생성된다. 구름 속 온도가 0℃에서 영하 40℃ 사이인 경우, 구름 속에는 과냉각 물방울과 얼음 결정이 공존한다. 과냉각 물방울은 대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 0℃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0℃ 미만에서는 과냉각 물방울에 대한 포화수증기압\*이 얼음 결정에 대한 포화수증기압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과냉각 물방울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는 얼음 결정으로 이동한다. 이동한 수증기가 얼음 결정에 달라붙어 점차 얼음 결정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빙정 과정’이라 한다. 이렇게 커진 얼음 결정이 지상으로 내리면 눈이 되고, 내려오는 도중에 녹으면 비가 된다. 빙정 과정을 응용하여 인공 강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오드화은을 구름에 뿌리면 얼음 결정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생성된 얼음 결정은 빙정 과정을 거쳐 성장하여 눈이나 비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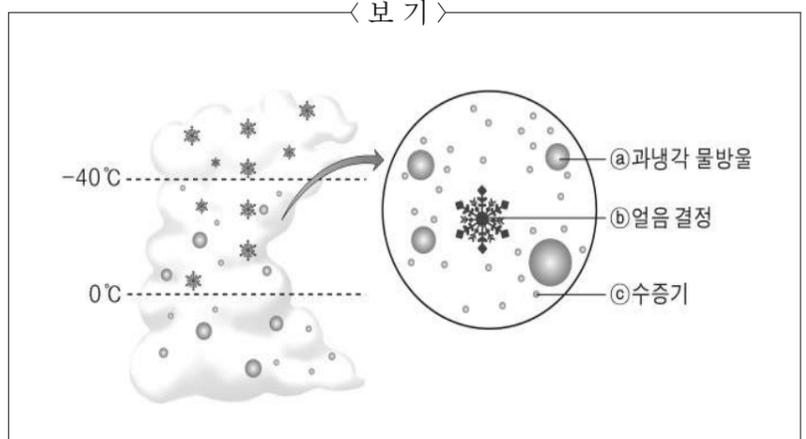
한편 열대 지방에서 구름 속의 온도가 0℃ 이상인 경우에는 얼음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방에서는 빙정 과정과 다른 과정을 거쳐 강수가 생성된다. 구름 속에는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이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들과 충돌하며 합쳐진다. 이때 구름 속 상승기류는 큰 물방울이 구름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작은 물방울들과 반복적으로 충돌하게 한다. 이로 인해 더 커진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다른 물방울과 충돌하며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 ‘충돌-병합 과정’이라 한다. 충돌-병합 과정으로 수백만 개의 물방울이 합쳐지면 빗방울이 되어 지면으로 떨어진다. 충돌-병합 과정을 응용하여 소금 입자와 같이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이나 물방울을 공중에 뿌려 구름 속 물방울이 크게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강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 포화수증기압 : 주어진 온도에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최대가 되었을 때의 수증기의 압력.

42.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 강우의 원리  
- 수증기의 이동을 중심으로
- ② 물방울의 과학적 특징  
- 과냉각 상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③ 구름의 종류와 형성 과정  
- 수증기의 응결 작용을 중심으로
- ④ 강수가 생성되는 원리  
- 얼음 결정과 물방울의 성장을 중심으로
- ⑤ 빙정 과정에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  
- 지역에 따른 강수 생성의 과정을 중심으로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대한 포화수증기압은 ㉡에 대한 포화수증기압보다 크다.
- ② ㉠은 ㉢이 달라붙어 점차 성장하는 빙정 과정을 거친다.
- ③ 0℃ 이하에서도 ㉠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증발하면 ㉢이 된다.
- ④ 구름에 요오드화은을 뿌리면 ㉡이 생성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⑤ ㉡이 성장하여 눈으로 내리다가 도중에 녹으면 비가 된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름 속의 온도가 0℃ 이상인 경우에 강수가 생성되는 원리이다.
- ② 구름 속 물방울들의 수가 적을수록 짧은 시간 내에 강수를 생성한다.
- ③ 상승 기류는 구름 속 물방울들이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합쳐지도록 한다.
- ④ 구름 속 물방울의 크기가 다른 것은 강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⑤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을 뿌려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42. 안방(밤, 회상)

혁이와 옥이도 다락에서 내려와 있다.  
서둘러 군복을 벗고 혁이의 옷을 입는 민이.  
어머니와 경아는 밥상을 들고 들어선다.

어머니 (경아에게 군복을 내밀며) 얼른 아궁이에 넣어 태워 버려라.

경아 (군복을 받아들이고 나간다)  
 민이 (밥을 달게 먹는다. 심한 고생을 했음이 역력하다)  
 혁이 진작 이리로 오시지 그랬어요.  
 큰아버지 여기라고 안전할 리도 없잖니.  
 어머니 그야 그렇지만..... 서로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요.  
 옥이 큰집 식구들은 아직 영동에 그냥 계신 거예요?  
 큰아버지 부산까지 갈 작정이긴 하다만.....  
 민이 (식사만 한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포성에 놀라는 식구들.

#### S#43. 부엌(밤, 회상)

밥상을 치우는 어머니와 경아, 불안한 시선을 주고 받는다.  
 어머니 깨끗하게 태웠지?  
 경아 네, 엄마. (사이) 큰아버지와 민이 오빠 죽 우리 집에 계실 건가?  
 어머니 내일 일을 어찌 알겠느냐. 코앞의 일도 모르겠는데.  
 경아 전쟁 같은 건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  
 어머니 불평할 기운도 없구나. 닥친 일은 닥친 대로 뛰어나가는 수밖에  
 경아 큰집 식구들 잠자린 어디로 할 거예요?  
 어머니 오밤중에도 뒤지러들 오니 어디.....  
 경아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와? 먹을 것도 넉넉잖고..... 우리 오빠들도 위험한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남도 아닌 사촌끼리 그게 할 소리냐? 누가 들을까 겁나는구나.  
 경아 엄마 앞이니까 해본 소린데요, 뭘.  
 어머니 잠자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구나.  
 경아 큰아버지께서 계시긴 찬마루 위 다락방이 너무 비좁잖아요.  
 어머니 식량도 몇 군데로 나눠 감추지들 않니. 혹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몽땅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나.  
 경아 엄마, 행랑채 벽장, 어때요?  
 어머니 너무 외져서.....  
 경아 (은밀하게) 그러니까 더 안전하죠. 그쪽은 거들떠도 안 보던데.  
 어머니 원체 오래 비워놓기두 했구..... 지저분해서.....  
 경아 그러니 좀 좋아요. 후딱 치우면 되죠, 뭐.  
 어머니 글썸다.  
 경아 (은밀하게) 우리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어머니 .....?  
 경아 거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찬마루 위 다락방보단.  
 어머니 (흠칫하고 민망해 하며) 원 애도.....

(중략)

#### S#46. 행랑채(밤, 회상)

방바닥에 쌓인 흙더미와 으스스한 기왓장 위에 널브러져 있는 어머니. 웅하니 뚫어진 지붕의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지는 달빛. 그 달빛으로 보이는 처참한 광경. 피. 피. 피.....  
 시뻘겋게 물든 호칭. 사방에 고여 있는 검붉은 선혈. 여기저기 흩어진 살점들.  
 쓰러져 있는 어머니 위로 경아도 함께 실신해 버린다.

#### S#47. 건넌방(밤, 현실)

회상에 잠긴 경아가 철철 울고 앉아 있다.

경아 (E) 내 오빠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렇게요. 큰 아버지와 민이 오빠는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큰집 식구들을 전처럼 좋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악마의 속삭임 같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행랑채가 더 안전할 거예요, 어머니.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책상다리에 고개를 묻고 숨죽여 우는 경아.

#### S#48. 마루(밤)

어머니가 탈진한 채 서서 불 밝혀진 건넌방을 보고 있다.  
 경아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 박완서 원작, 박진숙 각색, 「나무」 -

#### 4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이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인물이다.
- ② 큰아버지는 현실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
- ③ 어머니는 가족 간의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인물이다.
- ④ 경아는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인물이다.
- ⑤ 옥이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 46.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42에서는 가까이에서 들리는 대포 소리를 통해 전쟁 상황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고 있군.
- ② S#46에서 뚫어진 지붕 구멍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은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③ S#47에서는 효과음(E)을 통해 울고 있는 경아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④ S#42에서 S#43으로의 공간 이동은 어머니와 경아의 은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군.
- ⑤ S#46~S#48에서는 시간 흐름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 47.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극문학의 등장인물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될 때 작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위 글에서 폭격으로 인한 오빠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등장인물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경아와 어머니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다.
- ② 경아네 집을 방문한 큰집 식구들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다.
- ③ 경아는 사건 발생이 자신의 제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 ④ 사건 이후에 큰집 식구들에 대한 경아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 ⑤ 사건의 발생과 그 이후의 경아네 가족의 상황은 인과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음성언어**가 음성으로 표현되고 청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임에 비해 ㉡ **수화**는 손 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시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이다. 또한 수화는 음성언어에 비해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발달되지 않아서 주로 어순이나 수화의 맥락 등에 따라 그 문장성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예쁘다} {꽃}'의 순서로 수화하면 '{예쁘다}'가 어미의 활용 없이 '꽃'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지만, '{꽃} {예쁘다}'의 순서에서는 '{예쁘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다.

수화는 손을 사용하는 수지 신호와 손 이외의 얼굴이나 눈썹의 움직임, 입 모양 등의 비수지 신호로 의미를 전달한다.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음성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데 비해 비수지 신호는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

- (1)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 얼굴을 뒤로 약간 젖힘  
 수지 신호: {나} {화나다} \*  
 의 미: 나는 굉장히 화났다.

(1)에서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에 동반되어 수지 신호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보다 수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음성언어의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ㄱ.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벌리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  
 수지 신호: {이해} {되다} {-ㅂ니다}  
 의 미: 이해가 됩니까?

- ㄴ.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벌리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  
 수지 신호: {이해}  
 의 미: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서술어의 어간에 결합되어 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2)-ㄱ'에서처럼 수화에서는 '{-ㅂ니다}'라는 수지 신호와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를 함께 사용하여 의문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어 '(2)-ㄴ'에서처럼 {-ㅂ니다}라는 수지 신호 없이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한다.

- (3)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림  
 수지 신호: {빨리빨리} {결정}  
 의 미: 빨리빨리 결정해라.

수화의 명령문은 (3)에서처럼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림' 등과 같은 비수지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3)에서처럼 문장 끝에 있는 수지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데, 특히 강하게 명령할 때에는 비수지 신호를 문장 처음에 있는 수지 신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한다.

이렇듯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자, 시각적 신호와 의미의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체계이다.

\* { } : 수지 신호임을 알려주는 표시.  
 \* \_ : 수지 신호 중 밑줄이 표시된 부분은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지속되는 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임.

48.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다.
- ② 비수지 신호는 음성언어 상황의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③ 수지 신호는 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 ⑤ 명령문에서 비수지 신호가 처음부터 강하게 사용되면서 지속될 경우에는 명령의 의도가 강조된다.

49. ㉠과 ㉡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감각 기관을 통해 이해되는 체계이다.  
 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ㄷ. 어순에 따라 단어의 문장성분이 결정된다.  
 ㄹ. 표정이나 몸짓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0. <보기>는 '아이는 방에서 놀니까?'를 수화로 표현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비수지 신호				
	{아이}	{방}	{놀다}	{-ㅂ니다}
수지 신호				
	b	c	d	e

- ① a는 국어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 ② b 앞에 {예쁘다}를 표현하면 '예쁜 아이'라는 의미가 된다.
- ③ {에서} 없이 c만으로도 '방에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④ <보기>를 명령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려면 d를 바꾸면 된다.
- ⑤ e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a와 d를 함께 사용하면 '놀니까?'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